



가정통신문

부서담당: 보건교사 유주희
 전화번호: TEL: 021) 6493 - 9500
 FAX: 021) 6493 - 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郵)201107 ☎ 보건실 6493-9606

학부모님께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학생의 건강상태와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건강상태는 담임교사, 생활지도, 체육시간, 보건지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학생 신상에 대해서는 **외부에 비밀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담임교사에게 알려** 주시고,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보건교사와 통화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서는 보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표은 현재 건강문제로 교내 학습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병	해당사항만 ○표				담임 / 보건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 (체육활동이나 주의해야 할 활동)
	병명	완치	현재 치료 중	학습에 지장 있음	
천식					※정신과 질환이나 심리적인 장애 요인은 구체적으로 진단명이나 복용하는 약등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외 주의를 요해야 하는 건강상태와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할 경우
결핵					
위장계통					
심한 척추측만증					
디스크, 요통					
사지운동장애					
뇌성마비					
고혈압					
심장병					
시력장애					
청력장애					
정신과 질환					
당뇨병					
발작(경련 등)					
심한 아토피					
신장질환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소아암					
알러지(약물, 음식 등)					
기타 질환					
수술 및 치료 내용					

1. 법정 감염병 시 등교중지 안내

■ 등교중지를 시키는 이유

감염병에 걸린 아동이 등교 시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학교 내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 등교중지 방법

- 1)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2)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예: 인플루엔자(독감), 수두, 유행성결막염 등)

2.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열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	★ 환자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증상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120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부모에게 인계 ★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때 = 담임교사가 후송 = 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보건교사나 수업이 없는 교사가 후송 가능
기타 사항	★ 보건교사 출장 시에는 비상용 구급약품을 행정실에 비치합니다.	

- 1)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는 타 학생의 응급처치로 학교에 대기)
- 2)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교 판단 하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며, 필요시 120 구조대를 부를 것입니다.

2019. 03. 08.

상 해 한 국 학 교 장